

“<유심>은 문 단지만, 문학은 영원하다”

불교계 詩전문 월간지 <유심> 92호로 종간돼

만해 스님이 창간한 <유심>이 복간된지 15년 만에 종간(終刊)된다. <유심>은 최근 발행된 12월호(통권 92호)에서 “월간 <유심>은 12월호를 끝으로 발행을 중단한다”면서 “최근 잡지를 후원하던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종간사를 발표했다. 12월 4일에는 <유심> 편집국 자체 종간식을 열기도 했다.

<유심>은 “발행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도 고려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의무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유심>은 문을 닫지만 문학은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심>은 1918년 9월 1일 만해 스님이 주도해 창간된 잡지로 이 해 12월까지 총 3권이 발간됐다. 만해 스님이 편집인 및 발행인을 맡았으며 최린, 최남선, 이광중, 권상로 등이 논문과 소설 등을 집필했다.

이런 <유심>은 2001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계간지로 복간하며 내노라하는 저

명한 작가들의 글이 실리는 등 국내 최고의 시문학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여기에 2003년 유심작품상을 제정한 이후 신인 문인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 이후 <유심>은 2009년 1월부터 격월간지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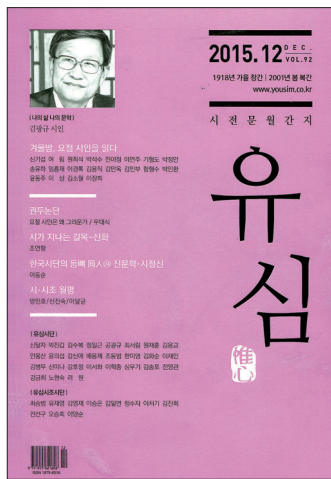
만해선양회 사업 축소가 이유

“성원해준 독자에게 죄송할 따름”

신인 및 유심작품상 등도 중단

문인들 “문단에도 큰 타격이다”

종간 결정에 대해 홍사성 <유심> 주간은 “그동안 불교와 문단을 소통하는 통로였고,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간하게 돼 미안함을 전한다”며 “모든 문학잡지가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 발행할 수 있다. 편집발행을 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 주간은 “한국 시단의 동인”은 끝을 보지 못해 아쉽다. 이와 함께 <유심>이 진행하고자 했던 기획은 다른 잡지에서라도 완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문단에도 얼마되지 않았던 시 전문 월간지의 종간에 문인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세영 시인(서울대 명예교수)은 “<유심>제호 자체가 만해 스님이 창간한 잡지

를 복간했던 것이다. 민족시인 만해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유심>은 한국 문단의 격을 높였던 흔치 않던 교양지였다. <유심>의 종간은 한국문단에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유자호 시인(구상선생기념사업회)은 “<유심>은 시와 시조를 함께 다루며 비평을 실었던 중요한 문예월간지”라면서 “시전문지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유심>마저 종간하니 아쉬움이 크다. 시라는 문학 장르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리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고 토로했다.

<유심>으로 등단해 시인이 된 문인들에게는 자신의 고향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심정이다. <유심>을 통해 시인으로 데뷔한 이학중 <미디어 붓다> 대표 기자는 “나에게는 ‘모지(母誌)’가 사라지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프다. 시(詩)는 ‘사찰(寺)에서 나온 말(言)’이다. 이 같은 문학 장르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쉽다”면서 “불교계에 만연한 공짜로 보고 들으려는 문화가 좋은 문학지 하나를 없앴다. 독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희귀양식 조선불화 일본서 발견

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 11월 27일 공개

한쪽 다리를 세운 유희좌를 한 독특한 조선시대 관음보살도가 최초로 발견됐다. 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은 11월 27일 최근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 사찰에서 발견한 선묘관음보살도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관음보살도는 가로 119.2cm, 세로 70.9cm 크기로 삼베에 붉은색을 칠하고 황토색 선만으로 그린 선묘(線描) 회화다. 채색된 곳은 보살의 머리 등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조계계대기 속에 숨은 진주처럼 커다란 연잎이 보살의 위아래에 배치된 양식으로 연꽃 위에 앉아있는 ‘유희좌(嬉坐) 관음보살’을 묘사했다. 정 관장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도상의 목판화는 충북 단양 구인사 소장본을 비롯해 6, 7개가 있지만 회화 작품으로는 이번 관음보살도가 유일하다.

정 관장은 “관음보살의 풍만한 얼굴, 묘선의 강약, 연꽃의 바림(한쪽을 짚고 칠하고 다른 쪽은 차츰 얇게 칠하는 것) 기법을 보면 16세기 불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관음보살도는 총 4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로와 세로로 각각 접힌 자국이 있는데, 이는 인지와 띠를 전후해 불법적으로 일본에 반출된 불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관장은 또 “새로 발견된 관음보살도



가마쿠라 사찰에서 발견된 선묘관음보살도. 사진제공=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

는 중국에서 수용된 목판본을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해 그린 거의 유일한 사례”라면서 “조선불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밝힌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반대여론 불구 ‘한 위원장’ 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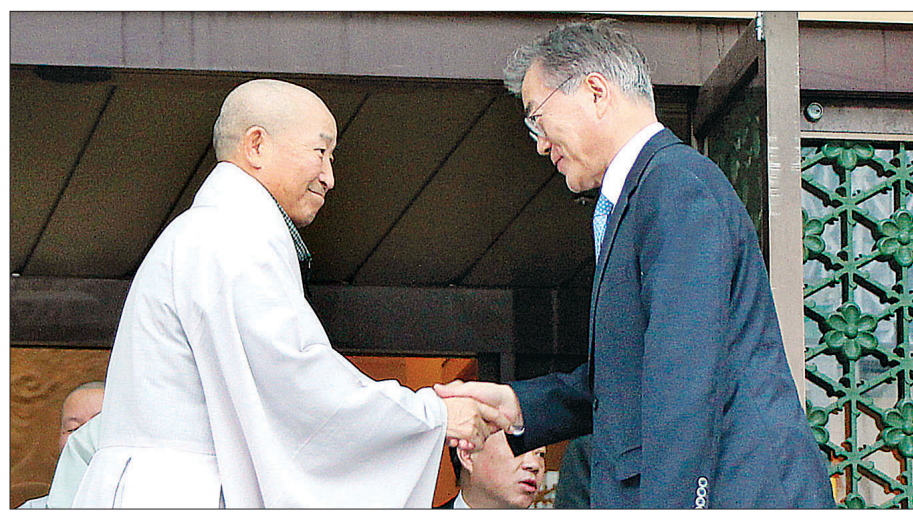
신도들 ‘수용vs퇴거’ 대립 지속 12월 1일 임원총회서 최종 합의 화쟁위, 12.5대회 평화지대 구성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은거를 두고 ‘수용이나 퇴거’ 대립각을 세운 조계사 신도회가 한 위원장을 끌어안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지 17일(12월 3일 현재)이 경과하며, 조계사 일대는 한 위원장을 끌어내라는 시민들이 몰려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행과 기도를 위해 조계사를 찾은 신도들 불만도 만만찮은 상황. 신도회 내에서 찬반 의견이 극명히 대립돼 왔다.

조계사 신도회는 12월 1일 신도 160명이 참석한 ‘한상균 위원장 거취 관련 임원총회’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수용결정을 재차 확인했다. 이세용 조계사 총무실장은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한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언급한 기일인 6일까지 기다리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도회는 “조계사는 하루속히 신도들이 누구나 참배하고 수행하는 청정도량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민노총 한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조계종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월 29일 회동을 갖고 12.5결기대회의 평화적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대다수 의견에 따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나, 하루빨리 조계사가 원상회복되길 바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은 앞서 11월 30일 발생한 조계사 신도회 일부 구성원들의 ‘한 위원장 강제 퇴거 시도’가 발단이 됐다. 조계사 신도회 회장단이라 밝힌 15명은 오후 2시 50분 경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위해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관음전 4층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보름 간 보

호했으면 됐다. 이제는 나가달라”면서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 했고, 이를 거부하는 한 위원장의 웃이 찢겨지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는 조계사 신도회 내부는 물론 조계사 및 조계종 총과 사전 협의 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구성원들이 밖으로 나와 경찰에 “함께 들어가 한 위원장을 체포하자”며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우식 조계사청년회 지도위원장은 이

튐날인 12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살의 사명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 내치는 데 있지 않다”면서 “공권력이 조계사에 무단 침탈한 적은 있어도, 마지막 의지처로 조계사에 들어온 중생을 일부 신도들이 실력 행사를 통해 경찰에 넘겨야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혼란에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책임을 통감했다. 화쟁위는 1일 ‘제4차 연석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어제 조계사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에 대해 참회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어제 일은 신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다. 조계사 신도들을 포함한 불교내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12.5결기대회가 평화 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발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월 29일 조계사 및 화쟁위원회를 방문해 “종교계가 12.5결기대회 평화적 성사를 위해 나선 데 환영하며 공동노력 하겠다”며 동참을 선언했다.

<차주상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난개발 광풍서 국립공원 자유롭게 하라!”

조계종 환경위 등 11월 30일 ‘국토청정 발원 천도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와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승 스님, 불교생명윤리협회장 법현 스님 등은 1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심정정·국토청정 발원 천도제’를 봉행하고, 보호지역 난개발 금지를 촉구했다.

이날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산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휴식을 주는 스승이며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다. 우리 선조들은 ‘산에 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산을 겸허한 마음으로 대했음을 의미한다”면서 “현대인들이 산을

찾는 이유는 맑은 공기 등을 통한 치료효과를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천도제 참가자들은 법승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이 땅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대자유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천명을 누리게 하라”면서 모든 국립·도립공원에 대한 환경훼손행위 금지를 촉구했다.

서울 상도초등학교 김민경(5학년)·이인준(6학년) 학생은 “대통령 할머님께!”라는 편지를 낭독하면서 정부가 자연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호소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불교생명윤리협회 등은 11월 30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심정정·국토청정 발원 천도제’를 개최했다.

강남 생활권 제2종 주거지역 및 2차선에 접한 과천토지 매각!

-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제2의 강남인 과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

과천시 2020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 예상지-과천”

4호선
선바위역
800m

국토부, GB 해제 집단취락지역 실태조사 실시!
재산권 행사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개발 탄력 받을...

- 국토부, 주민 실태조사 종료 개선안 마련계획 (2015-05-21 한국경제)
- 30만㎡이하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장에게 이관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7곳 해제, 12곳 용역 검토중)

부동산 매각개요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도시지역 자연녹지)-그린벨트

구분	공급면적	매각가
A블럭	330㎡	1억 2천만원
B블럭	330㎡	1억 1천만원
C블럭	330㎡	1억원

■ 청약금: 100만원 ▶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인접 토지의 경우, 1,500~3,000만원의 시세가 형성중 (공시지가: 700~800만원)

3.3㎡당 100~120만원

(분양단위 : 330㎡)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 소유권 등기: 법무사

청약신청 02)2058-0132

(현장관리자)